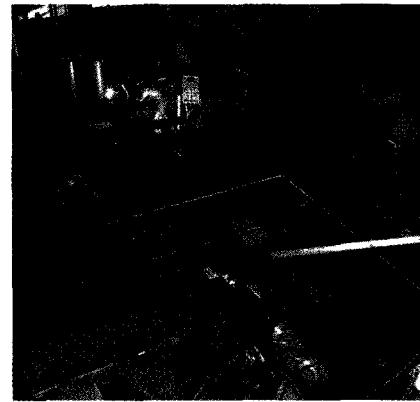


## “2002년 에너지총조사”

열관리인들의 실전노하우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마쳐...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에너지경제 연구원이 시행하는 『2002년 에너지총조사』가 성공리에 마쳐졌다.

이번 『2002년 에너지총조사』에서는 상업·공공부문, 농어업부문, 건설업부문의 조사기관으로 한국열관리사협회가 선정되어 지난 99년 제7차 총조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리에 조사임무를 수행했다.

대형건물·산업체 등 에너지관련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3만여 협회회원들의 실전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근간으로 서울을 포함, 지방의 협회원들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지조사의 맹점인 방

문조사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정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해 열관리인들의 전문지식이 적극 반영된 의미있는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서 정책적인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에너지총조사’의 에너지통계조사는 전국의 상업 및 공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원별, 용도별 사용실태, 에너지 이용 및 설비 현황 등을 파악하여 동부문의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국가적 에너지정책 입안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력·가스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에 동의하고 있다.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도 원전 유지와 국가관리 등 현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의무가입 시기에 대해 3차기간(2018~2022) 중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체에너지 핵심 정책 수단으로는 국내 에너지 총이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5%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금년 발전회사 파업에서도 드러나듯이 가장 첨예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향후 전기요금, 전력수급 안정성,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원간 형평성 ⇨ 환경문제 등 매우 다양한 쟁점사항을 가지는 복합적이고 갈등요인이 많은 사안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차기정부는 구조개편에 의한 경쟁도입 및 민영화 자체에 대하여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련하

여 기존 정책추진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경쟁과 노동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경쟁으로의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인의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급안정대책 마련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파업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민영화 문제와 관련하여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다. 발전회사 구매자 선정, 소비자보호 및 매각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민영화추진계획의 선행 제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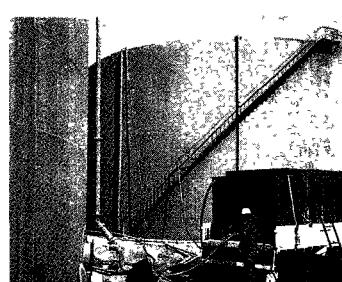


## 귀사의 위험물 유류저장탱크 문제점을 책임지겠습니다.



(주)덕양엔지니어링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22번지  
대표전화 : (02)2636-0997  
TEL : (02)678-0997/8, FAX : (02)671-8725



벙커C유 유류탱크를 청소한 후 경유탱크로 풀목 변경 사용



■탱크청소공사 ■탱크내부라이닝 ■탱크 및 배관보수 ■유류사고 긴급보수 ■탱크 용도폐지공사

(주)덕양엔지니어링은 현장상황에 맞게 직접 설계·제작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유류저장탱크의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해결합니다.

### 주요 공사실적업체

태광산업/신도리코/동부제강/태평양/대한제색공업/홍천하이트맥주/천안진로산업/파주시민회관/청주시청/서울세관/서산시청/한국마사회/수원성균관대학교/용인명지대학교/항공대학교/경상대학교/롯데월드/대구파크호텔/무주리조트/백암한화콘도/대전삼부아파트/의정부장암아파트/광주 두암주공/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이천○○작전시령부/대구○○시령부/충천○○사단/원주○○사단/현대정유/에쓰-오일/저유소/주유소/다수업체